

# 포천교육청, 알찬 틈새 학교 4차 캠프 실시

## 관내 소득층 자녀 등 320여명 대상 체험학습

포천교육청은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북면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알찬틈새학교 3차 현장학습(11.24.)에 이은 4차 캠프를 운영했다.

관내 저소득층 자녀 및 일반 희망학생 320여명(초5, 6, 중1)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틈새학교 4차 캠프는 학습자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편성된 부서를 중심으로 심화 및 공통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발표회와 전시회로 마무리 되었다. 1. 2차 캠프와는 달리 이번 4차 캠프에서는 보드게임, 미술(익사이팅 매직볼), 포디프레

임, 케이넥스, 비즈공예, 점핑레이, 판소리(경기민요), 한국무용(강강술래), 라인트레이서 등의 9개 프로그램 중 6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개별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이번 캠프에는 관내 청소년국악단 늘푸른 국악교실 학생들 70명이 참가하여, 12월 18일 반월아트홀에서 있을 늘푸른 국악교실(늘새학교) 발표회 준비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국악교실은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위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가야금, 아쟁, 피리, 모듬북, 해금, 대금 등의 악기를 심화하여 학습하였다. 2일째 밤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캠프에 참여한 320명의 학생들이 친선을 다지기도 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교육청은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북면 산정호수 유스타운에서 알찬틈새학교 3차 현장학습에 이은 4차 캠프를 운영했다.

### 가행문

## 휴전선에 다녀오다

얼마 전에 나는 민주 통일 차세대 준비 위원으로서 민주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통일 준비위원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차세대 통일 준비위원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려는 굳은 의지로, 여러 지역의 통일 현장 방문에 참여하고, 그 견학에서 얻은 지식은 학교와 정교생에게 전달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정신을 주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때 따라 우리 차세대 통일 준비 위원들은 2007년 12월 13일(목)날 철원의 제2땅굴과 철의 삼각 전망대, 월정리역에 다녀왔다. 과학관 등의 다른 박물관 견학과는 다르게 가는 동안 마음이 무겁고 두 주먹이 꼭 쥐어졌다. 내 두 어깨에 우리 포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일 정신이 달려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잘 보고 와야 할 텐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잘 말 해 주어야 할 텐데, 이것이 내 임무인데.'

철원에 도착하여 철의 삼각 전적지 관리 사무소에 갔다. 그곳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발표회를 따라가 볼 수 있었으며, 통일관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영상관에서는 멀티미디어로 전쟁 당시에 있었던 상처의 아픔, 정성화담, 땅굴의 모습 등의 통일 안보 교육을 머릿속에 속 들어오게, 실감나게 받을 수 있었다. 철의 삼각 전적지 관리소를 벗어나 뒤로 돌아갈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15일 경기도 고양포에서 제 1땅굴이 발견됨에 따라 이곳에도 땅굴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지하수를 파는 시추장비로 총 45개의 시추공을 뚫어 이중 7개가 북한에서 판 남침용 땅굴에 정확히 관통되었고 1975년 3월 1일 우리 군이 제 2땅굴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땅굴을 파다가 우리 군에 발각되자, 도망가면서 지뢰를 묻어 놨고, 수색하던 우리 군인들이 그 지뢰에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무장을 한 군인 아저씨들이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 더 이상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셨다. 100미터만 더 가면 북한 경계선이 라고 한다. 군인 아저씨들이 지키고 계신 근처에는 [소원성취]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의 물이 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이 모인 것인지 땅굴 속이라서 지하



이지연 학생명예기자 · 포천초 4년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요." 하고 말할 때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땅굴을 벗어나 우리는 월정리역에 갔다. 이곳은 서울에서 북쪽 원산으로 달리던 철마가 잠시 멈춰서 가는 곳으로 남방 한계선과 가까운 최북단 종착지점이라고 한다. 역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통일을 기원하는 간절한 글이 쓰여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월정리역에서 마지막 기적을 올렸던 객차의 잔해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채 누워 있었고, 철마의 앞부분은 북쪽이 후퇴하면서 끌고 갔다 하니, 남북 분단의 아픔을 이 철마 자체에서도 실감하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민주평통 차세대 통일준비위원으로 위촉된 포천관내 초·중·고 학생들은 지난 13일 안보관람체험을 실시했다.

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지렁이 공굴처럼 되어서 북한으로 가는 경원선 철길도 이어지게 해 주세요. 여차피 북한에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서 파왔고,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 아저씨들을 죽게 한 이 땅굴은,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옛 이야기하며 손잡고 여행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통일이 되어 남과 북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 지키고 있을 군인 아저씨들의 수도도 없게 해 주세요. 추운데 떨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 아저씨들이 군대 생활도 조금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총을 치우고, 그 힘과 노력을 남북이 서로 모아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월정리역 옆에 있는 철의 삼각 전망대에 올라갔다. 그곳은 북쪽 길 고지나 피의 능선 등, 깊숙 땅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대이다. 이곳에서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가 한국 전쟁 당시 얼마나 처참한 곳이었는지를 설명 들으며 온 몸이 떨렸다. 통일! 통일이 되어야 한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지 않으려면 통일이 되어야 하고, 지금 설명들은 처참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나의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는 일이다. 그리고 자라나는 민중에 빛나는 위인이 될 것을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 민족의 평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떨리는 다리를 잡고, 짐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올라타는 나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 작은 발표회

우리학교는 소규모학교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넓고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7월달에는 5학년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12월29일에는 5학년이 파주영아마을을 간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 학교는 무료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교는 우리 지현초등학교 밖에 없다고 한다.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다. 지금은 유치원부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와주었으면 한다.

무료로 하고있는 방과 후 활동은 영어특기적성과, 컴퓨터특기적성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영어특기적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 방과 후 활동을 부모님들께 소개하고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12월 5일 작은 특기적성 발표회를 열었다. 보육 프로그램은 사진으로, 컴퓨터부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출력하여 벽에 멋지게 걸어 두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영어특기적성부이다. 영어특기적성부는 특기적성발표회를 위해 선생님과 함께 소품도 만들고 재미있게 연습도 하였다. 1.2학년은 노래와 춤을 3.4학년은 피노키오 MUSICAL을 5.6학년은 아기돼지 3형제 MUSICAL을 준비했다. 다목적실에는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있었다. 1.2학년들이 노래와 춤을



양애화 학생명예기자 · 지현초 2년

추니 모두들 귀여워 해주었다. 그러니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돼지 꼬리와 머리띠를 쓰니 떨리고 3.4학년 뮤지컬을 보니 더욱더 떨렸다. 3.4학년의 마지막 필살기 테메 댄스를 추고 이제 우리가 등장해야 할 시간이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연기력이! 뛰어나고 목소리도 크고 발표준비도 잘했던 우리들이 떨리는건 처음일 것이다. 5.6학년뮤지컬은 피노키오처럼 감동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MUSICAL이다. 그래서 MUSICAL을 내내 하는 동안 웃어주니깐 점점 더 힘이 났다. 마지막 노래가 끝나고 너무나 반박소리와 환호성이 터졌다.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보람 있었던 게 실감났던 그 날 작지만 멋진 특기적성 발표회의 막이 올랐다.

우리학교는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지금처럼 방과 후 활동을 개선할 것이다.



지현초등학교 학생들은 12월5일 특기적성 발표회를 가졌다.

## 차세대 통일준비위원 안보 현장체험

###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주관으로 실시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차세대 통일준비위원들은 13일 철원 고성정 등 안보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안보현장 체험은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주관으로 11월6일 차세대 통일준비위원으로 위촉된 포천시 관내 53개 초·중·고 학생 등은 1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차세대 통일준비위원들은 대형 버스 3대에 나누어 타고 철원 고성정에 도착해 안보영상물을 상

영하고 제2땅굴과 철원평화전망대 등을 견학한 후 귀가했다.

차세대 통일준비위원들은 청소년들에게 통일의를 심어주고 지역 사회에 통일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한편, 이날 안보체험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안보관련 상영물과 북한 실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차세대 통일준비위원들은 13일 철원 고성정 등 안보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 울려라 창의벨 王 박정우

### 왕방초등학교 5학년 170명 대상으로

왕방초등학교에서 교내 울려라 창의벨이 열렸다. 5학년 학생 170명 중 반별 예선을 거쳐 최종 50명 분선 진출이 되었다.

문제의 유형은 교과와 관련된 문제 및 교과 외 각종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방형한 문제와 모두가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 문제를 출제하였다.

비교적 많은 5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경연대회를 통해 자신

의 창의력과 지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 창의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는 창의력을 높이는 학교 분위기 조성, 두번째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었다.

이번 울려라 창의벨의 왕은 박정우(5-2)학생이 차지하였다.

박한아 학생명예기자 (왕방초 5년) hanahne@naver.com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④

君子有九思하니 視思明하며 聽思聰하며 色思溫하며 貌思恭하며 言思忠하며 事思敬하며 疑思問하며 忿思難하며 見得思義니라.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보는 것은 밝게 보기를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생각하며 용모는 공손하게 가지기를 생각하며 말은 성실하기를 생각하며 일처리 하는 것은 공경히 하기를 생각하며 의심나는 것은 물기를 생각하며 성날 때에는 장차 다투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고 얻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만 사물을 밝게 볼 수 있고 남의 말을 밝게 들을 수가 있다. 얼굴빛은 항상 밝바람이 일 듯이 온화하게 해야 하고 용모는 공손하게 가져야 한다. 말은 성실하여 신의가 있어야 하고, 일처리 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신중히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물고 해결하도록 한다.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화가 치민다고 해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덤비는 것은 금물이다. 먼저 앞으로 다투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고 신중을 기하여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참는 것이 잘한 것이 될 때가 많다. 이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잃게 얻은 것인지를 생각한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생각도 없이 받았다가 불행할 초래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양주승 본지 사무원외교관

###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수와셈 5. <대화> : (1) \* <조언> : 천 단위 이상을 말하거나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세 자리(000,000)씩 끊어서 알리리 수를 인식하는 습관을 익혀야 유리하다. \* 이 집을 얼마에 사셨습니까? 하우머취 디주페이 휘디스하우스?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house?> \* 23만 불 주었습니까?(\$230,000) 투한드레드퍼리 따우센달라스 <Two hundred thirty thousand Dollars.> \* 한화로 2억 원이 조금 넘는군요 잇서리틀오버 투한드레드밀리언스 윈 <It's over two hundred millions Won.> \* 대지가 일만 평방 휘이 인데요 너랜스 텐따우센 스퀘어휘이 <The land is ten thousand square feet.> \* 한국 것가의 거의 절반이군요 잇서바우러합후 대름후코리아 <It's about a half that of Korea.>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 심리상담 ①

## 집중 못하고 산만한데 ADHD인가요?

최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어린이들의 문제는 부모들에게는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우리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심리상담교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예술심리치료연구소 우리심리상담센터 유정현 책임연구원이 이 코너를 연재하기로 했다. 독자여러분에게 유익한 코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Q 우리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해요. ADHD인가요? A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란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주의가 산만한 아동을 보면 ADHD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ADHD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거가 있습니다. 속제나 놀이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다.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자기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질문을 끝내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한다. 게임이나 집단상황에서 차례를 기다리기 어렵다. 이러한 행동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ADHD로 진단을 받은 아동이라면 부모님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지시 해 주세요. 산만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한 번에 말한다면 있어버리거나 만창을 피우게 됩니다. 셋째, 공부나 활동 내용을 쉬운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동수준의 바로 전단계에서 아동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집중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공부시간은 짧은 단위로 끊고 그 시간동안 충분히 집중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공부시간을 조금씩 늘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아동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세요. 산만한 우리아동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만히 있기 힘들기 때문에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의 반복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의 기회를 반복하여 우리아동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한편, ADHD로 진단 받지는 않았지만 산만한 아동이라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동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주의가 산만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아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무엇을 할 때 주의가 산만해 지는지, 주의가 흩어지게 만드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습관이 들지 않거나 또는 아동 수준에 비해 공부나 활동이 너무 어려워져, 호기심이 많아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서 산만한 아동을 지도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아동 주변을 말끔하게 치워 주세요. 너무 많은 장난감이나 책, 지저분한 환경은 성인들도 쉽게 주의가 분산됩니다. 둘째, 아동에게 지시를 내릴 때는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고



상담문의: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